

소시민 일상 너머 지역 격차 제주·서울 잇는 청년작가들

현덕식 회화전 스페이스D
돌하르방 닳은 뚜벅이 등장

고안철은 현무암 소재 설치
SNS로 두 지역 소통 시도

청년 작가들이 제주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들이 서울 전시 공간에 펼쳐지고 있다. 현덕식·고안철 작가의 개인전이다.

현덕식 작가는 제주출신 양은희 평론가가 운영하는 강남구 스페이스 D에서 ‘뚜벅이의 시간’이란 이름으로 지난 7일부터 회화전을 열고 있다. 동양화 기법을 이용해 근래 뚜벅이 캐릭터를 붙잡고 있는 현 작가는 이번엔 평범한 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살이의

희노애락을 재치있게 담아냈다.

뚜벅이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현 작가는 제주 돌하르방이나 동자석 형상을 닳은 뚜벅이를 등장시켜 소시민의 소박한 인생사를 풀어낸다.

전시는 11월 8일까지 계속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문을 닫는다. 문의 02)6494-1000.

고안철 작가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실시하는 ‘청년예술 처음 발표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3일부터 을지로 아트스페이스 스위트에서 첫 개인전을 치르고 있다. 전시 제목은 ‘여기, 저기 그리고 어디에서나(Here, There and Everywhere)’.

작가는 SNS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서울과 지역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현덕식의 '나만 믿어! #2'.

시도를 보여준다. 구좌읍에 있는 할머니집 담벼락에서 주운 현무암을 분쇄 만든 설치작품을 서울 갤러리로 전송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정보

가 실시간 유통되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드러낸다. 전시는 이달 12일까지. 문의 064)800-9163. 전선희기자

“성희롱 재심 청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문제재단 피해자 지지 직원들
인사부서 부적절 개입 등 주장
사건 영향 성과급 미지급 성토
공식 사과·특별감사 청구 촉구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들이 지난달 18일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4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가해자 중징계를 결정(본보 9월 23일자 8면)한 일에 대해 수용한다면 성도 인사위원회 인사담당부서의 업무방관, 부적절 개입 등이 확인됐으며

조직혁신안 마련, 특별감사 청구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을 바라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일동’은 8일 언론에 보낸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고충처리위원 개인 명의로 두 차례 발표해온 것과 달리 전 직원 간담회를 통해 쓰여졌다. “성희롱 사건을 발단으로 제기되어 온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현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조직차원의 2차, 3차 가해가 계속되는 등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지막 입장문이 되기를 바라며 작성했다.

입장문에는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의결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12일째 되는 날에 청구서를 접수했고 입증 서류(사과확인서)를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간사인 인사담당부서장이 피해자에게 직접 받아 접수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인사위원들의 경우엔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취감형 인정 발언을 하고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조언을 하는 등 가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2018년 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직원 성과급을 제주도에서 지급 보류한 사실을 공개하며 “사건이 공론화되고 장기화될 수 밖에 없었던 명백한 원인이 이사장과 업무 관련자에게 있음에도 미지급 책임을 힘없는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2차 가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3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10일까지 이사장과 인사담당부서의 공식 사과, 성과급 지급, 특별감사 청구 등을 촉구했다. 이사장 등에게는 10월 31일까지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조직 혁신안 마련도 요구했다. 전선희기자

제주어 조례 ‘제주어 주간’ 헛갈리네

10월 첫째 주 金부터 1주일
탐라문화제 기간 동시 명시
실제 축제 일정과 달라 혼선

제주어 사전과 육성 조례에 따라 제주어 주간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시기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조례상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명시해놓은 탓이다.

제주어 조례 ‘제주어 주간 지정 등’에 대한 조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올해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가 제주어 주간이고 탐라문화제 기간과 일부 겹친다.

그동안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열며 제주어 보전·전승 분위기를 이끌

어온 탐라문화제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축제 일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다. 58회째인 올해는 10월 둘째 주인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지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축제 시기가 9월 말~10월 중순에 걸쳐있다. 주최 측인 제주에

총은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매해 일정을 달리해왔다. 일각에서는 제주어 주간을 10월 9일 한글날과 연계해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글날 전후로 탐라문화제가 열리는 만큼 조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제주

어말하기로 대표되는 탐라문화제 제주어축제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제주어 주간을 기념해 제주어연구소 제주어 도서자료전(15일까지 포지션면 제주),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세계 토착어의 해 기념 공연(9일 김만덕기념관), 제주어보존회의 제주어큰잔치(12일 산지전 공연)와 제주어 골육락대회(26일 농어업인회관)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에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담한판

<173>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맹이, ‘누님! 좀네질이나 잘 하여시면 막 좋네 몰아 낫지예? 맞수다.

좀네질 잘 하여사 상줍수를 홀수 이시난예.

좀네가 홀맨, “오맹이야- 그조록 몰아주난 고마운게.

나가 맹심하여 잘 하여사 홀긴디.

하르바지가 곧는다. “야네덜야 홀룡이 맹근 놀렐 죽은 바위덜이

와랑차랑, 와랑차랑 놀렐 불루멍 바위덜을 모앗저게.

죽은 바위덜이 바위덜을 요디 저디 모도락하게 하여영 모따바시난

홀룡이 먹을 걸 주젠 하여주게. 구쟁기덜이여영 쿠살, 줌복, 매역덜,

그것만이 아니여게. 돛개기영 새개기, 독새기덜이여게.”

* 제주어 풀이

*좀네질(몰질, 좀네질, 좀수질, 잠수질, 해녀질)

: <이름> 해녀가 바다에 나가 잠수하여 해산물을 잡는 일.

*상줍수(상군, 상좀네, 왕좀네, 큰좀네.): <이름> 잠수 일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그런 무리를 가리키는 말. 해녀의 우두머리.

*모도락이(모드락이): <어찌> 한곳에 잘 모여져 있는 풀.

*구쟁기(고동, 구제기, 구제기, 구쟁이): <이름> 소라.

*쿠살(구살, 귀, 귀살, 성기, 귀, 키): <이름> 성개. 섬개.

*줌복(생복, 생복, 전복, 줌복, 점복): <이름> 전복. *매역(머역): <이름> 미역.

*돛개기(도새기 개기, 도야지 개기): <이름> 돼지고기.

*새개기(새고기): <이름> 쇠고기. *독새기(독새기): <이름> 달걀 또는 다른 날짐승의 알.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생><생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때가림><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문화가 쏙지

뮤지컬 ‘프린세스 마리’

국립제주박물관은 10월 둘째 주 ‘토요 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으로 이달 12일 오후 2시와 5시 박물관 강당에서 창작 뮤지컬 ‘프린세스 마리’를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평범한 소녀 마리가 동화 속 공주들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구하려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숙한 동화를 유쾌하게 비틀어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린다. 에스24를 통해 1인 4매까지 예약 가능하다. 문의 064)720-8035.

김정문화회관 어린이극

서귀포시는 연극 ‘뽕 굽는 포포 아저씨’를 오는 12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관람하는 동안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주인공 포포아저씨와 함께 반죽을 하는 오감만족 예술 체험극이다. 임금님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분주하게 뽕을 만들던 포포아저씨가 임금님인 줄 모르고 불쌍한 손님을 내쫓은 뒤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의 760-3792.

제7회 재 제주시 중문중학교 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한라산과 천제연폭포의 기상을 받아 석조전당 아래
우렁차고 씩씩하게 뛰어놀던 중문중 학생들이 모여서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제7회재 제주시 중문중 동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 및 가족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9년 10월 13일 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한라중학교 체육관

주 최 | 재 제주시 중문중학교 동문회 주 관 | 중문중학교 23기·24기·25기 동창회

회 장 원종진(207) ☎ 010-2690-9090

직전회장 고승암(197)

수석부회장 정용호(217)

여성부회장 고순희(307)

사무국장 강인택(307) ☎ 010-4917-8880

재무이사 한경림(327) ☎ 010-3697-0412

총무이사 이수철(407)

홍보이사 강홍균(297)

조직이사 김연엽(327)

체육이사 강상근(327)

사업이사 오이권(337)

부회장 임남선(207) 이경찬(217) 고부영(227)

김성억(237) 김태훈(247) 강영진(257)

강기복(267) 김하룡(277) 이경순(287)

고병효(297) 강문석(307) 이창훈(317)

정경훈(347) 김봉석(357) 서창운(387)

명예대회장 원희룡(297)

역대회장단 제3대 이원진(127)·제4대 김영문(137)·제5대 이두범(147)·제6대 김기성(157)·제7대 강용철(167)·제8대 김춘식(177)·제9대 정가권(187)



재 제주시 중문중학교 동문회 회장 원종진